

“평등한 한 걸음, 능동적 동참과 실천 상징”

상월선원 만행결사 추진위원회
총도감 호산 스님

상월선원 천막결사로 시작된 만행결사가 ‘천리수행’으로 이어지며 걷기 수행 확산이 기대되는 가운데 만행결사 추진위원회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신심을 증장하는 시간이자 전법과 포교가 불자의 사명임을 확인하는 수행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종교인구 감소와 출가자 급감 등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불교가 중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 한 사람이라도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회주 지승 스님의 가르침에서 이번 순례 또한 출발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걸어가느냐’고 묻지만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동시에 불교의 정체성과 가르침에 대한 단적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은 건강과 연관해 걷기를 떠올리지만 불교적 의미가 더해진 걷기는 구도행이며 전법행”이라고 설명한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셨고,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는 법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걸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길을 떠나라고 당부하셨다”며 “이는 걷는다는 행위로 표현되는 자발적이고 능동



적인 동참과 실천, 그리고 삼보와 사부대중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자비순례와 천리순례로 이어지는 일련의 만행결사는 대중이 함께 한다는 점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천리를 걷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버거운 일”이라는 호산 스님은 “그러나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없는 것을 만나고,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서로 격려하며 극복하는 과정은 사부대중의 힘을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

불교사·수행 생생한 사찰·성보 참배로 불자들 자긍심 고취
전 세계 유일 ‘살아있는 순례길’ 불교에 대한 인식 높아질 것

가야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진다”며 “어려움을 감내하며 순례의 길을 걷는 불자들의 모습은 편리함과 편안함, 빠르고 쉬운 것에 몰입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자체로 자성의 경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순례의 주제를 ‘삼보사찰’로 정하고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로 이어지는 여정을 선택한 이유 역시 사부대중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스님은 “불교는 삼보에서 출발하고 그 안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있으며 수행과 포교 또한 삼보 안에서 이뤄진다”며 “삼보를 개념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느낄 때 불교에 새로운 바람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특히 삼보사찰을 잇는 순례길에는 옛 스님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점도 주목된다. 19일 간 순례 과정에서 참배하게 되는 화엄사, 천은사, 사성암, 실상사, 표충사 등은 모두 대표적인 수행도량이자 불교사의 중심 무대였다. 호산 스님은 “지난해 자비순례에서는 사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참배를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번 순례는 신심 증장과 사부대

중 결속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불교사를 접하고 성보를 진경할 수 있도록 사찰들을 참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보사찰 천리순례 경로가 살아있는 성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스페인 산티아고가 순례길로 유명하지만, 사찰의 역사가 이어지고 지금도 스님들이 거주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리순례 경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순례길이다”며 “수행과 신행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불자들은 자긍심과 신심을 높이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자비순례 길에서 참깨가 여물어가는 발을 지나가다 고소한 짭짤함이 코끝을 스친 적이 있다”고 회상한 호산 스님은 “참기름을 머금은 듯한 고소함이 퍼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로움을 느꼈다”며 “이번 순례 또한 삼보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삶의 의미와 불교의 환희를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해인사, 재적승 194명에 수행비 첫 지급

7월20일, 15만원씩 개인통장 입금
월 7500만원...연 9억원 지출 예상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현승 스님)가 재적승을 대상으로 기초수행비 지급을 시작했다. 첫 대상자는 194명이며 1인당 15만원이 7월20일 개인 통장으로 지급됐다.

앞서 해인사는 분한신고와 결계신고를 필한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 이상의 해인사 재적승을 대상으로 4월25일~6월30일 기초수행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해인사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 총 197명이 신청했으며 중단 미등록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소유자 스님 3명을 제외하고 194명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기초수행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스님은 비구스님 107명, 비구니스님 87명이다. 연령별로는 90대 1명, 80대 6명, 70대 15명, 60대 48명, 50대 88명, 40대 35명, 30대 1명이다. 50대 스님들이 총 지원자의 45.4%를 차지한다. 선원에서 수행중인 스님들은 85명이며 이는 지급대상자의 약 44%다. 매년 선원에서 안거 수행 중인 스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승려복지제도가 될 것이라는 게 해인사 측의 설명이다.

해인사는 7월13일 ‘해인사교구 재적승 기초수행비 지급 규정’을 제정해 기초수행비 신청을 계속 받기로 했으며 매월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인사 측은 기초수행비 대상자를 최대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월 7500만원, 연 9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수행비 지급은 해인사 본사뿐 아니라 각 말사와 산내암사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만 동참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앞서 해인사는 기초수행비 지급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교구 총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바 있다. 이후 5개 권역별로 해인사 말사 주지스님들과의 간담회, 산내암자 감원회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해 동의를 얻었다.

해인사는 “말사와 산내암자의 실시 일반 동참이 중요한 것이기에 최대 5구좌, 월 7만원까지 동참 가능하며 나머지 예산은 본사인 해인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수행비 지급 동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연금액은 해인사교구 특별회계로 관리돼 기초수행비 지급 용도로만 사용된다. 농협 351-1183-0408-53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

만해추진위, 25회 수상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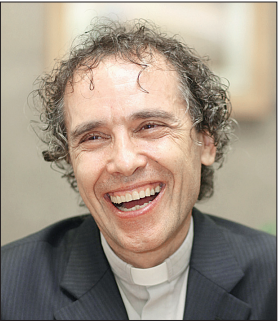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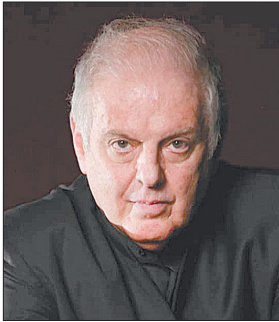
실천 보각 스님·김하중 신부

문예 오정희 소설가·강수진 단장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에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이 선정됐다.

만해추진추진위원회(위원장 박재기·동국대 교무부총장)는 7월21일 제25회 만해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평화대상은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천대상은 지체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과 안나의집 대표 김하중 신부가 받는다. 문예대상은 오정희 소설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평화대상의 다니엘 바렌보임은 음악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세계적인 음악가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유대인 음악



제25회 만해대상 수상자들. 사진 왼쪽 위부터 평화대상 다니엘 바렌보임, 실천대상 보각 스님·김하중 신부, 문예대상 오정희 소설가·강수진 단장.

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젊은 음악가들을 모아 음악을 통해 화합을 실현하고자 ‘서동시집(West-Eastern Divan)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실천대상의 보각 스님은 한국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선구자다. 1985년부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해

2019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1000여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김하중 신부는 경기도 성남 노숙인들의 대부다. 성남 성남동성당 인근 ‘안나의집’에서 노숙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며, 가솔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운영 중이다.

문예대상의 오정희 소설가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서정적이면서 밀도 높은 문제의 미학을 빚어냈다. 한국 사회 보통 여성의 일상적 삶을 다루면서, 인간 존재의 보편적 근원과 심층을 섬광처럼 조명한 소설을 잇달아 발표했다. 강수진 단장은 1985년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국내 발레의 대중화라는 의무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공연’ ‘찾아가는 발레교실’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상식은 8월12일 만해축전이 열리는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거행된다. 만해축전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불교 개척가였던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동국대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주최로 매년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김현태 기자

성운 스님, 백만원력에 1억원 쾌척

7월20일, 원행 스님 예방서

“대작불사 원만성취 기원”

서울 삼전사 회주 성운 스님이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힘을 보탰다.

성운 스님은 7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큰일을 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위해서도 큰 기금을 선포 기부해줘 감사하다”며 “기금으로 인해 백만원력 불사 추진에 용기를 얻었다. 복지를 위한 스님의 큰 뜻도 원만하게 화합하도록 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성운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원만 성취하기를 기원한다”며 “백만원력이라는 작명이 갖는 의미와 힘이



크다. 총무원장스님의 큰 동력으로 종단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운 스님은 인덕원삼전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을 불교전문 요양원으로 기부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성운 스님은 “대부분 스님들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 요양, 노후를 미리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후후 종단과 논의해 기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작은 살림 승가 공동체를 알립니다>

세상 속 변화가 너무 빨라 그 회전축에 휘감겨 버린다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흐르다 묻혀버리는 것이 자연 생태계 속

작은 존재의 生死의 이치일지도 모르지요!

하여 함께 자리하는 차담 속에 수행담, 포교의 경험담,

시주은혜의 고마움에 대한 기억들, 아름답고 여법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납 탄석이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며 석가세존의 흔적을 따라가며 남은 시간 속에

가형정진하는 수행담을 만들어가보시지요.

(사) 한국불교 선각종 <禪覺宗>

행정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3

수행자 탄석 두손모아 정례

043)645-3272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봇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북문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